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무재해 다짐 특별 안전교육 실시

윤성수 기자 | 승인 2026.02.25 10:02 | 댓글 0

공사현장 관계자 100여 명 참석...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도서·소규모 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당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2월 24일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무재해 다짐 특별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2월 24일 공사현장 관계자와 공사 감독을 대상으로 '무재해 다짐 특별 안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공사현장 관계자와 공사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전보건협의회 구성과 건설 현장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현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지역본부 안전관리센터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정경훈 지사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경영 방침을 전달하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도서 지역과 소규모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무재해 다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발주자와 수급업체가 상호 협력해 건설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결의했다.